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4호 [루게 제24617호] 주제 103(2014)년 7월 23일(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를 도이쉴란드 베를린 아차위메디아프린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머리글에는 다음과 같이 적여져있다. 김일성주석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그의 저작을 특별히 출판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애에 수많은 통일방안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사업에 거대한 업적

을 쌓아올리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그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이 저작을 출판한다.

로작발행식이 2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은 조선반도의 현실과 조선인민의 지향에 맞는 독창적인 통일방안이다.

자주적인 나라들을 어떻게 하나 분렬화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조선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이 글들은 참다운 인민의 축복이 되자》를 로씨야 나호드카 포르마트출판사에서 2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령도가 안아온 승리

주제 사상 신봉자들의 반향

우리 나라를 방문한 주제사상신봉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술적과 선군혁명적업을 길이 전하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고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나이제리야 김일성-김정일주의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라한 맘멘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념관을 참관하면서 조선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마련된것인가를 잘 알게 되었다.

미국은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세계제국화전략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방대한 무력으로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준엄한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미국의 패망의 력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인민의 승리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의연구 소조 위원장 가스 로우렌스 엘튼은 기념관이 웅장한 규모로 훌륭하게 꾸려졌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의 신성한 명해에 침범하였다가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에 나포된 미제무장간첩선 《루에블로》호에서 자를 뜯수 없었다.

이것은 그들의 치욕의 력사를 현실로 보여주는 공화국의 전리품이다. 전지된 모든 자료들과 증거물들을 보면 어린이들까지도 미국의 침략 야망은 조국전쟁에 대하여 쉽게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미국은 쓰라린 교훈을 잊지 말고 하루빨리 조선에서 침략무력을 철수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편대성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동풍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 대표단 단장 프. 바야르사이한은 지금 서방은 조선전쟁에 대하여 외국 선전하고있다고 하면서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이 유엔의 간판밑에 자기의 추종국가군대들을 동원하여

저지른 침략전쟁이다, 기념관의 모든 증거물들이 그것을 물질적으로, 자료적으로 립증해주고있다고 토로하였다.

로씨야 김정숙명칭서생동맹 위원장 엘레나 비비치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미국의 침략 야망은 조급도 변하지 않았다. 오늘날 미국은 침략전쟁연습을 광범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실현될수 없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버리고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와 핵무기를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 밑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승리의 전풍을 굳건히 개승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전승사에 아로새겨진 불멸의 업적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화의 나날 정력적인 령도로 전시증산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위대한 승리의 명절이며 제2해방의 날인 7월 27일이 다가오고 있다.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전체 군대와 인민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가장 준엄하였던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형장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전승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백두산절세위인의 혁명시목의 갈피마다에는 가별한 전화의 나날 정력적인 령도로 전시증산투쟁을 이끄시여 전정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신 불멸의 업적이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 당과 국가, 군대의 모든 증책을 함뿔고 나가며 결승의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며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 전시생산에 커다란 힘을 쏟으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 전시생산에 커다란 힘을 쏟으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 전시생산에 커다란 힘을 쏟으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 전시생산에 커다란 힘을 쏟으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 전시생산에 커다란 힘을 쏟으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 전시생산에 커다란 힘을 쏟으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전시농업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자》, 《8.15해방 6돐 기념 평양시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등의 저작들에서 전쟁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전시생산을 다그치며 전선원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주제 41(1952)년 3월과 주제 42(1953)년 1월에 진행된 인민경제날 백두산절세위인의 혁명시목의 갈피마다에는 가별한 전화의 나날 정력적인 령도로 전시증산투쟁을 이끄시여 전정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신 불멸의 업적이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 당과 국가, 군대의 모든 증책을 함뿔고 나가며 결승의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며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 전시생산에 커다란 힘을 쏟으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 전시생산에 커다란 힘을 쏟으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 전시생산에 커다란 힘을 쏟으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 전시생산에 커다란 힘을 쏟으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 전시생산에 커다란 힘을 쏟으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 전시생산에 커다란 힘을 쏟으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 전시생산에 커다란 힘을 쏟으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습시다.

를 찾으시여 농민들에게 전선에서 적들과 판가리싸움을 하고있는 군인들에게 식량을 넘겨주어 대충출수 있게 복제복을 적에게 끌며 알곡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다음해 5월 어느날 이른 새벽 대동군 원화리(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사정형과 마을형편을 료해하시고 농민들을 도와 파종을 하시고 하시며 몸소 씨앗을 뿌리시였다.

절세위인의 한없이 숭고한 품고에 고무된 농민들은 대피소를 파괴하고 적의 폭격이 그칠새 없는 속에서 도 낮에 밤을 이어 영농작업을 다그쳤다.

또한 농촌에서는 녀성보장이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녀성들은 전선에 나간 남편과 아들, 오빠를 대신하여 알곡증산으로 원호사업에 복수의 죽음을 안길 결사의 각오로 지난 시기에는 남성들만 할수 있던 논밭갈이를 제힘으로 해제끼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안고 펼쳐나신 농민들의 애국적열의에 의하여 주제41(1952)년에 알곡 총수확고는 전체에 비하여 113%로 성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전시공업생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선과 후방에 군수품과 생활필수품들을 적극 보장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나라의 경제를 전시체제로 신속히 개편하도록 하신데 이어 전시공업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였다.

전시생산에 깊은 관심을 들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제40(1951)년 2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군과리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위기와 탄압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기쁨몰은 로동자들의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트

거운 은정을 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저지도에 붙잡혀 이 고무된 군과리 로동계급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불타는 중요성을 안고 전시생산을 다그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소규모의 지방공업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들리시고 지방산업공장들을 보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생산협동조합들을 도처에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나라의 전방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안전지대로 분산소개되고 필요한 군수공장과 소규모공장이 일떠서고 전선조건에서 생산을 계속 할수 있는 체제가 세워졌다.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싸우는 전선에 보내줄 무기와 탄약 등 군수품생산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전방적인 생산량이 전쟁전에 비하여 5-6배로 올라갔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포연탄우를 헤치시고 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며 군수생산을 늘이도록 생산자대중을 적극 고무하시였다.

전시생산은 물론 전후의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휘하주시신 이 조치에 따라 지방산업공장과 생산협동조합들에서는 각종 유류자재와 원료원천들을 최대한으로 동원이용하여 생산을 늘임으로써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우리 인민에게 전쟁승리에 대한 신심을 베풀어주고 미제의 판가리결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무궁무진한 원동력이였다.

은 나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그 정신으로 화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이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강성국가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여나가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킨다

전력증산에 총력량을 집중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청진시 포항중심부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인들과 항쟁부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이미 2만여㎡에 달하는 포항광장 풍크리트로장공사를 끝내고 여러동의 고층살림집을 완공하여 새집들이를 보장한데 이어 수백세대에 달하는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팔조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면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생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명쾌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단계별건설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운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이 통이 큰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청진시 포항중심부건설장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펴기있게 해 나가고있다.

김하진동무들을 비롯한 도건설지휘부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화선식적시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북돋아주고있다.

도건설지휘부와 구역단위들과 각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은 건물팔조공사를 일정에 맞게 내밀기 위한 전투조직을 짜고드는 것과 함께 세멘트와 강재, 목재, 혼석을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인민군인들이 공공건물들의 팔조공사에서 혁명군대의 전투적기백을 남김없이 펼치고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는 신념의 구조를 높이 들고 건설에서 달려나오는 인민군인들은 단숨에의 정신으로 맡은 건물팔조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은 시공에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 건설물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건설에 동원된 공장, 기업소들과 도당, 시(구역)급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련일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도철도건설련단의 전투원들은 전승절전으로 맡겨진 살림집 건설을 끝낸 드높은 열의를 안고 고층살림집팔조공사를 끝내고 내외부미장에 들어갔다. 청진시의학대학에서 동원된 건설자들이 발취하여 덩치 큰 고층살림집 팔조공사를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강2동, 3동의 가두인민반원들이 이들을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공공건물건설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세차게 지펴올리며 날여나갔다.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도건설관리국을 비롯한 공공건물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막대한 량의 토량을 처리하고 기초타입공사를 끝낸 데 이어 상판부재와 블록생산

을 립체적으로 내밀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도건설지휘부에서는 살림집 팔조공사가 끝나고 내외부미장과 장문달기가 적극 추진되는데 맞게 도로포장과 보도블록깔기, 잔디밭조성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고무산세멘트공장과 청진강재공장을 비롯한 단위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해나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뜨겁게 피세기며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길이 빛내어가는 건설자들의 고결한 총성과 애국적헌신에 의하여 7월에도 건설사업은 계속 확대되고있다.

청진시 포항중심부건설장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 나가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탄력을 안겨 주고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수 품 발전소

타오르고있다. 3중3대혁명붉은기 1발전소 일군들은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두고 전력생산자들이 안전을 위한 점검조사와 사회사업을 책임있게 하도록 하여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2중3대혁명붉은기 2발전소 일군들은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혁신은 수력구조물과 설비보수, 부속품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창조되고있다. 수력구조물제작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300㎡에 달하는 연제대터립을 진행하여 한방울의 물도 새어나가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 5년간 전력생산계획을 성취한 공적을 기어하였다. 전기제작의 일군들

과 로동자들은 발전기와 변압기를 비롯한 설비보수정비를 짜고들어 상반기기간에만도 운영설비들에 대한 연간 수리보수계획의 80%이상을 해제함으로써 전력생산능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발전기들에 대한 보수정비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생산보장하고있다.

전력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발전소에서는 기술발전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발전기의 력지와 조속기를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면서 그 성과를 적극 도입반파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후방사업자 사회주의 선봉전이라는 명칭을 붙여 로동자들에게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들의 양양된 열의를 더 한층 높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운



년간 고치생산계획 넘쳐 수행

은천고치생산사업소에서

은천고치생산사업소에서 봄누에고치생산기간에 년간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에치기도 힘있게 내밀어야 하겠습시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사업소에서는 봄누에고치생산기간에 년간계획을 수행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에치기도 힘있게 내밀어야 하겠습시다.》

일군들이 누에고치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들을 확실히 알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량단, 매화직업반에서 누에고치생산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일관성을 통이 크게 벌려왔다. 이 작업반에 나간 일군들은 뽕잎생산이 자 누에고치생산성과를 이룩하고서 뽕나무배관리를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일 높은 열의를 보였다. 누에고치 생산을 늘이는것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 드높은 결의를 안고 분발해나선 로동자들은 뽕나무가지 자르기, 가지치기, 매기, 매기, 뽕사뽕나무기 등

작각하고 펼쳐나선 누에관리공들은 서로의 창조적혜와 힘을 합쳐가면서 누에가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결과 사업소에서는 봄누에고치생산기간에 년간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지금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가을누에치기준비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김 창 길

철광석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 부산 광산련합기업소에서 -

비밀한 예지와 탁월한 군사전략으로 미제를 라승하신 불세출의 령장

우리 식 싸움법으로 이룩하신 빛나는 승리

어느 한 시인은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은 찾지 말라 북남 삼천리에 제미만 남았다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가렬성을 표현하였다. 그토록 가렬했던 조국해방전쟁에서 세상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엎는 기적들이 창조되었다.

그 기적창조의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전체적인 군사전략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전법들로 싸운데 있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우리 인민의 체질에 맞는 싸움법을 창조하시어 우리 식으로 싸워이길 도록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진승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 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제국주의강적을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주체전법을 창조하신 군사영재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 전기간 비법한 사색과 창조적열정으로 미제의 수직, 군사기술적우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라승할 수 있는 우리 식의 독특한 전법들을 구상하시고 실천에 옮기시었다.

주제 40(1951)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앞으로 조용히 다가서던 한 일군은 저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수령님께서 깊은 생각에 잠겨서 고지중턱을 횡단한 긴 방포호인 듯 한 도면을 그리고계시었다.

일군이 찬찬히 눈여겨보다 도면은 방포호가 아니었다.

초기시에 잡겨 도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진선에 걸쳐서 이만 강도를 끝낼하고 놀음을 매려오라 한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 아직 도면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있는 일군에게 조성된 군

사정치정세는 바로 이런 전법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전진행편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시었다.

그이의 말씀을 듣는 일군의 눈앞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전선의 광경이 펼쳐지는듯싶었다.

그때 기본적으로 고착된 전선의 모든 산과 봉선, 골짜기들은 불바다에 잠기고 가렬한 싸움으로 낮과 밤이 이어지고있었다. 캄캄한 만화극기 위하여 적들은 매일 수많은 폭탄과 포탄을 퍼부으며 말야 하였다. 고지의 다람쥐마져 보금자리를 잃고 전사들의 품으로 뛰어들고있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두차례의 세계대전과 다른 나라의 전쟁들에서 널리 리용된 방어체계는 우리 나라의 전쟁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것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새로운 전법을 창조하신것이였다.

도면은 바로 조선의 유리한 산악지형조건을 리용하여 방어지형전법에 공교한 전투용강도를 끝낼하고 참호를 비롯한 아전축성물들을 배합하여 강도를 기본으로 하는 방어전법을 구축하시려는 강철의 령장의 구상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령장의 가르침을 받으며 도면을 보는 일군에게는 강도전지에 의거하여 싸우는 이 새로운 전법이아말로 적의 수직, 군사기술적우세로부터 우리 인민군사들과 전투기술기재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놀음을 더 많이 소멸하며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할뿐아니라 전투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방어전법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전법이라는것이 명백히 안겨졌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우리 식의 우월한 전법이었다.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특정한 강도전지에 의거하여 비할바 없 이 많은 력량으로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적들을 무리로 쓸어들이며 조국의 고지들과 해안선을 철벽으로 지켜줄 인민군사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강도전지에서 펼쳐질

군인들의 탁월한 생활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할수록 인민군사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수령님께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는 인간사랑, 인간중시의 전법이라는 격정에 가슴은 뭉클 젖어올랐다.

우리 수령님께서 무엇보다먼저 관심하신 문제는 작전전술적 측면에 앞서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였다.

최고사령관으로서 인민군사들의 다짐하고 자애로운 어버이시였기에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하나의 전법을 구상 하시면서서도 인민군사들의 안전과 그들의 생활조건부터 생각하시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개된 군사사상이나 전법은 오직 주체사상의 위대한 창시자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을 수 있었다.

적들의 폭탄과 포탄이 우박치는 속에서도 강도안에서 화성악기의 선율이 맞추어 노래도 부르고 흥겨운 춤판도 벌리고 시도 읊는 인민군사들의 전투사상은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필승의 신념으로 가득찬 노래소리는 온 나라에 힘있게 울려다졌으며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또 하나의 위대한 무기로 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강도안에서는 화성음악만 있었던것이 아니었다. 우리 인민군사들은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가 계속되는 속에서 풍나물을 비롯한 부식물도 자체로 보장하면서 원기를 돋우며 원수의 싸움에서 무비의 용맹을 펼치였다. 우리 수령님의 따라서 용어 버어이사람이 갖든 풍나물은 단순한 부식물이 아니라 령장의 힘과 철결본골의 투지를 안겨준 영양소였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포도식물들을 들이대면서 원수들이 악을 쓰며 달려들 때에도 인민군사들은 견고한 강도전지에 더운발과 국을 먹으며 고향의 무로에게 그려보았고 해방후 꿈같이 흘러간 새 조국전선의 나팔을 들이켜보았다. 그 소중한 모든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침착자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겨주는 강도는 평범한 방어전법이 아니라 적들에게 죽

음을 주는 거대한 총구였고 멸적의 포문이었다.

우리 식의 독특한 강도전법앞에 미제는 완전히 넋을 잃고 우리의 강도들을 올려다보며 비행기도 포도 당할수 없는 불락의 요새라고 비명을 질렀다. 전선의 산과 들, 하늘과 바다에서 깨어졌것은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였으며 군사기술적우세는 물먹은 당벌처럼 무너져내렸다.

어찌 강도전법뿐이랴.

산악전, 야간전, 습격전, 비행기사냥군 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활동 그런가 하면 주체적인 포병전법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 나라의 지리특성과 주체적인 실정,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에 맞게 창조된 전투방법과 전술들은 일찌기 전쟁초기부터 싸움을 조신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끊임없는 사색과 실천의 낮과 밤을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감감한 밤에 침묵을 하나하나 타고넘으신 팀장강철대리는 강철의 령장께서 헤치신 전진선의 수많은 사신의 언덕들이 얼마나 위험한 고비들이었는가를 오늘도 말없이 전해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포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전승의 그날까지 이끌고오신 전진길에서 완성된 우리 식 전법들은 싸움터마다에 철저히 구현되였으며 그 과정에 군사분야에서는 주체가 철저히 확립되어나가게 되였다.

수백년의 전쟁력사를 자랑하는 미제와의 싸움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거둔 승리는 천체적인 군사전략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이든 독자적인 우리 식 전법들의 위대한 승리였다.

또 한쪽의 백두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진승업적은 백전백승하는 선군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영민

— 전쟁의 전환적구면들을 열어가시던 날에 —

천리혜안으로 꿰뚫어보신 흥계

주제 39(1950)년 9월 초 어느날이였다.

적들의 새로운 움직임에 놀고 론의를 거듭하던 작전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들을 반갑게 맞이주시며 그들은 반갑게 맞이주시며 눈을 피발이 선것을 보니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모양이라고 걱정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놀음이 사랑 돌아가며 줄곧한을 떨구어 다리와 도로, 철길을 끊

어늘고 상륙돌음을 벌리는것은 다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허위행동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인척으로 상륙하여 서울을 강점함으로써 락동강전선의 아군주력부대들을 《포위소멸》하라는 적들의 음흉한 기도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적들의 허위행동에 철대로 속대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었다. 적들의 종잡을 수 없는 음

과학적인 통찰력

적의 약한 고리가 어디일가고 궁리하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타격방향은 적의 기본 력량이 집결된 전선서부로 정해주시고 이미전부리 구상해오신 반공적작전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시었다.

그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적의 약한 고리를 치고 그 성과를 확대해나가는 공인된 상식에서 벗어난 작전 계획이기때문이었다.

직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속을 썩이던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연막으로 가리운 적들의 진짜행동목적을 뚝뚝히 알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적들의 작전개시날자를 예측하시고 그를 파란시키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시었다.

인민군주력부대를 완전히 《포위소멸》하셨다면서 인척 상륙작전을 벌렸던 음모는 텅 빈 항아리를 들여다보는 격이 되고말았다.

무비의 답력

주제 40(1951)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어떤 전선동무에 중장할 부대문제를 놓고 론의를 거듭하던 작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일군들이 동무에 보낼 데 비대때문에 안타까워하고있는것을 아신 수령님께서서는 전선서부에서 그 방도를 찾아주시었다. 경한을 금치 못하고있는 일군들을 정정케

답력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서는 전선서부에서 동무에로 기동하는것을 우리 련합부대의 로정을 전선과 평행선을 그으며 직접으로 정해주시었다.

전선을 가까이 두고 부대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동도 중 적들의 공격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리가 일군들의 열에 력력하였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히려 전선을 가까이 두고 기동하

본사기자

기때문에 우리의 방어선에 대한 적들의 공세가 감행되는 경우에는 기동하는 부대들이 신속히 그 지점의 방어에 참가할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것을 깨우쳐주시고 대답한 명령을 내리시었다.

일군들은 또다시 격정의 파도에 휩싸였다.

위대한 령장의 무비의 답력이 낳은 전태없는 대기동작으로 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춘 적들의 《하가공세》는 스러진 참패를 면치 못했다.

남강도 미제물침을 뿌린 승리자들의 열렬한 축하에 본사기자 리영민

몸소 가르쳐주신 적땅크잡이묘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지난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수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강적들을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라승하심으로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세상사람들이 다함없이 칭송과 신뢰를 받으시었다.》

주제 40(1951)년 1월 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 한 인민군지휘소를 찾으시고 강도에 들어서시어 일군들에게 적들의 작전적기도를 파란시키고 전진구면들을 유리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한

지휘관에게 반땅크전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고, 파악이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적비행기때문에 직사포를 낮게 제대로 리용 못하여 놀들의 땅크를 마음대로 잡지 못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휘관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었다.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땅크를 잡는데 반드시 포가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놀라는 눈빛으로 그이를 우러르는 지휘관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서부 지대는 눈발이 많고 습지가 많으며 반대로 중부지대와 동부지대는 험한 산줄기때문에 도로가 평야 비탈을 끼고있다고 하시면서 그같이때문에 적땅크를

걸을 떠나서는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고, 이것은 적땅크들이 가지고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그들의 생각을 띄워주시었다.

우리는 바로 이 약한 고리를 리용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적의 땅크가 마음대로 활동할수 없게 해야 한다. 특히 땅크사냥군조를 조직하여 적땅크들을 사냥하여야 하겠다.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서 앞의것만 파헤쳐 놓으면 뒤의것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기동성을 상실한 땅크는 죽은 법이나 같다고 하나 하나 알기 쉽게 이야기하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은 지휘관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가르침을 대로 한다면 적비행기들의 발아도 문제될것이 없고 직사포가

없어도 얼마든지 적땅크들을 손쉽게 까부실수 있었다.

문제는 그 어떤 무장장비나 력량상세, 다른 나라에서 쓰던 그 무슨 《전법》을 쳐다보고 교조적으로 따르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제 나라의 실정을 잘 알고 제 머리로 그에 맞는 우리 식의 전법을 찾고 그것을 적극 활용해나가는 것이었는지 아닌가.

그날 지휘관들은 위대한 령장의 비법한 군사적재와 지략을 심상마다에 새겨안았다.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위대한 적땅크잡이묘술이 있어 그후 인민군사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땅크들을 무자비하게 까부실수 있었으며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을 수 있었다.

본사기자 리금분



남강도 미제물침을 뿌린 승리자들의 열렬한 축하에 본사기자 리영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질트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까 하라

에질트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브들 파라흐 알 씨씨각하

나는 귀국인민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7월 23일혁명 62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에질트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7월 22일

박봉주 총리 함흥시안의 중요공장, 기업소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함흥시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 8비료련합기업소, 통성기련합기업소에서 주체비료와 비닐물, 대살비료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협의회에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친 위대한 김일성장군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기업소들에서 생산의 돌을 세 차례 올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총리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2. 8비료련합기업소에서, 통성기련합기업소에서 주체비료와 비닐물, 대살비료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협의회에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친 위대한 김일성장군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기업소들에서 생산의 돌을 세 차례 올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생산을 높을 수

중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련관단위에서 기업소들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총리는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사적이 깃들여있는 흥남제약공장을 돌아보면서 공장현대화공사를 계속 힘있게 내미는것과 함께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의도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데 대하여》 발표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데 대하여》 발표 30돐 기념보고회 22일 인민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만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쓸모있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자!》,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에는 최태복동지와 위용진내각부총리,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김승두, 김일성총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 판계부본 일군들, 평양시내 교육부본 일군들과 교원, 연구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보고회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3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73(1984)년 7월 22일 제9차 전국교육일군대회(전국교육일

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신것은 사회주의교육의 본질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교육사업이 차지하는 위치,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는 무엇이 중요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세 세대를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우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로 작에 명시되어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사회주의 교육체에서 밝혀주신 주체적이든 인민적인 교육사상의 과학성과 정당성, 생활력을 제인성, 계획적이고 교육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30년간은 로작의 사상리론들이 빛나게 구현하여 나라의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교육의 면모가 일신되여는 자랑스러운 년대기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후대교육사 및 족간부양사업발전이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마련해주시

었다.

선군정치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김일성총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과 각급 학교들을 찾으시어 선군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기로 정면적으로 이끌어 주시었다.

보고자는 우리의 주체교육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교육발전방향과 방도, 원칙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모든것을 교육발전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교육사상과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시었다.

승고한 후대사명을 지니시고 교육중시를 나라의 제일국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전면적11년제의무교육제도를 전면적12년제의무교육제도로 강화발전시켜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진과 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것은 나라의 고등교육발전과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서 새로운 비약이 일어날수 있게 하는 귀중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속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소년소년과 개건하도록 하고 모든 소년소년들에게 훌륭한 우리도록 하시였을뿐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을 나라의 인내성에 한계를 버려가려는 애국자로 내세우시면서 사회주의부귀영화는 남김없이 우리도록 대대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키는데로 확고히 지향시켜 학생들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헌신하는 참된 애국자로 키워야 한다.

교육에서 정책적대, 혁명적대, 철학적대, 과학적대의 포화강도높이 들어다며 과학기술과목들의 교육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혁신적안목에서 진행해나가야 한다.

중등일반교육에서 기초과학교육과 예능, 체육, 기초기술교육에 큰 힘을 넣어 인민적교육의 질적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고등교육에서 전문과학적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혁신하며 각종 학교들의 전반적교육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수제교육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사범들의 현대화, 정보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교육부문의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우선으로 틀어쥐고 당의 교육정책과 방침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교육행정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교직원, 학생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어야 한다.

보고자는 모든 교육일군들과 교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것으로써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전화의 불길속에 버려진 총대가 있어 내 나라의 하늘은 푸르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명맥》에 대하여

전승의 환희와 기쁨은 그 어느 민족에게나 소중하다. 그러나 력사는 피로써 기록한 전승도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 강력한 총대가 없으면 세월의 이끼에 덮이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족의 운명과 총대, 이것은 세월을 이어 그 의의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회정치적 주제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 나라처럼 민족의 운명과 총대의 호상관계 문제가 결박하게 제기되고 또 문제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게 해결한 나라는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백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입니다.》

전승 61돐을 맞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환희와 기쁨은 무적필승의 백두산 총대를 가진것으로 하여 그뜻 같고 공지공론이다. 천만군민의 이러한 사상감을 반영한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명맥》(탁승민 작)은 지난 조국해방전쟁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국방공업발전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서사적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장편소설 《명맥》이 수령형상창조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는 자위적국공명업창설과 발전된 민족의 만민대대로 정하고서 조국에게 밀고나가는 강철의 령장, 절세의 애국자의 불멸의 영웅상을 창조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행성에는 평화가 깃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평화는 대국들에게 의해 지켜지는것이라고 여기고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와 함께 민족분열의 아픔을

경게 된 우리 민족이었으며 공화국남반부를 감정한 미제의 무력증강책등으로 하여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받게 된 우리 인민이었다.

이러한 정치군사적정세의 심각성을 예리하게 통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자력적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 국방공업을 창설할때 대한 방침을 내놓으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의 첫 기슭에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법과 현명한 명도까지 우리 공화국은 자위적인 군수공업을 창설할수 있었으며 수백년의 군수산업력사를 가진 미제와 맞서 싸울수 있게 되었다.

작품은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전화의 나날 군수공업의 자립성과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놓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는 어버이수령님의 강인담대한 배짱이야말로 원자력까지 휘두르며 달려드는 미제를 무릅쓸수 있는 크나큰 힘과 그것을 강경하게 밝히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까지 어느 한 산골집에서 잠시 휴식하게 되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눈앞에 펼쳐진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의 유래도 알려주시며 조국에 대해 잘 알아야 자기 나라의 지형과 기후풍토도 맞게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수 있고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다는 뜻깊은 말씀을 주신다. 그러시면서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박격포성상을 늘여야 하며 적들이 무리로 덤벼들수록 깊은 골안에 몰아넣고 포사격을 들이치고 우후루뎌박을 안겨야 한다는 천투술의 비결도 가르쳐주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전란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작전을 지도해 행성에는 평화가 깃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평화는 대국들에게 의해 지켜지는것이라고 여기고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와 함께 민족분열의 아픔을

공정들이 새로 꾸러지게 되며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는 기적이 창조된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원자탄을 가진 미제를 이길수 없다는 생각을 안고 우리를 찾아온 자본주의나라 기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불가피성을 깨닫혀서 주신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한다 해도 지구상에 미제가 있는 한 우리는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신차적인 힘을 넣을것이라고 명백히 선언하신다.

공업잠재력이 있는 나라들에서만인 창조적생각으로 되어온 군수공업건설을 전화의 불길속에서 중단없이 밀고나가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형상은 그대로 백두의 총대를 떠나서 전쟁의 승리로, 조국의 부강번영으로 가는 심오한 내용을 밝히고있다.

장편소설 《명맥》이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한 성과는 다음으로 우리 힘과 기술을 의거한 군수공업건설원칙을 내세우시고 전화의 불길속에서 군수공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술회로, 로동계급의 운명과 생활을 따뭇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품도를 강경하게 형성한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과 함께 인연 맺었던 군수공업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을 준엄한 일군해방전쟁의 나날에 더욱 따뭇이 끌어안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정양시방안을 위한 무기문제에 제기되었을 때에 군자리로동계급에게 이 과업을 주시었다. 이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그들에게 압박을 보내주시는 다정한 사랑을 베풀어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군수공장로동계급이 눈보라속에서 용선로를 일떠세우고 수류탄생산을 진행하고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못내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솜웃을 보내주신다. 비록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군수공장로동계급을 최고사령부의 작전적구상을 받들어가는 혁명동지로 굳게 밀고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기에 전화의 나날 불꽃튀는 생산전투가 진행되는 공터에서 찾아주시며 그들의 생활의 구성구석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신다.

로동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간직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까지 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압록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에도 우리 군수공장로동계급을 믿고 건너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어 군수공장로동계급은 안락의 원수들을 악랄한 책동을 짓부르며 생산을 늘려나갈수 있었으며 미제의 《신공세》의 서막으로 된 정형고지전투에서 우리의 포탄으로 맹렬히 불소나기를 퍼붓게 된다.

소설은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데서 군수공업이 나라의 명맥이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와 거거운 사랑은 군수공업로동계급의 무한한 힘의 원천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다음으로 장편소설 《명맥》이 거둔 성과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군수공장로동계급이 발휘한 수령형상유형을 예로 하는 군자리정신이야말로 세대를 이어 즐기게 계승해나가는 할 고귀한 시대정신이라는것을 진실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는것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군자리로동계급은 공장을 안전한 곳으로 소개하는 것과 함께 기관총 700정을 만들때 대한 최고사령부 명령을 받게 된다. 적들의 포성이 울려오도 전기공로도 중단되고 식량도 떨어지지만 결사대원들은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고 총알로 쏟아져 기관총생산을 진행한 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사대원들이 불사신처럼 싸워나

갈수 있는것은 바로 그들의 가슴마다에 간직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왜놈들의 군수공장에서 기사로 복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지용모를 우리 나라를 지키는 총대를 생산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가장한경이 복잡한 려면회계 일을 잘하여 당원이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다.

가슴속에 불타고 뜨거웠을 간직한 이들이기에 끝없는 광채는 화약연기로 앞을 불수 없게 되자 재빨리 목표표현에 나서서 무기성능검사를 해내고야만한다. 이런 결사투쟁의 정신을 간직한 로동계급이기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전쟁 전기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미제를 타승하고 혁명의 속포를 싸울리는데 적극 기여하게 되는것이다.

장편소설 《명맥》은 나라와 민족의 명맥이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와 거거운 사랑은 군수공업로동계급의 무한한 힘의 원천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다음으로 장편소설 《명맥》이 거둔 성과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군수공장로동계급이 발휘한 수령형상유형을 예로 하는 군자리정신이야말로 세대를 이어 즐기게 계승해나가는 할 고귀한 시대정신이라는것을 진실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는것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군자리로동계급은 공장을 안전한 곳으로 소개하는 것과 함께 기관총 700정을 만들때 대한 최고사령부 명령을 받게 된다. 적들의 포성이 울려오도 전기공로도 중단되고 식량도 떨어지지만 결사대원들은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고 총알로 쏟아져 기관총생산을 진행한 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사대원들이 불사신처럼 싸워나

갈수 있는것은 바로 그들의 가슴마다에 간직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왜놈들의 군수공장에서 기사로 복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지용모를 우리 나라를 지키는 총대를 생산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가장한경이 복잡한 려면회계 일을 잘하여 당원이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다.

가슴속에 불타고 뜨거웠을 간직한 이들이기에 끝없는 광채는 화약연기로 앞을 불수 없게 되자 재빨리 목표표현에 나서서 무기성능검사를 해내고야만한다. 이런 결사투쟁의 정신을 간직한 로동계급이기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전쟁 전기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미제를 타승하고 혁명의 속포를 싸울리는데 적극 기여하게 되는것이다.

장편소설 《명맥》은 나라와 민족의 명맥이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와 거거운 사랑은 군수공업로동계급의 무한한 힘의 원천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다음으로 장편소설 《명맥》이 거둔 성과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군수공장로동계급이 발휘한 수령형상유형을 예로 하는 군자리정신이야말로 세대를 이어 즐기게 계승해나가는 할 고귀한 시대정신이라는것을 진실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는것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군자리로동계급은 공장을 안전한 곳으로 소개하는 것과 함께 기관총 700정을 만들때 대한 최고사령부 명령을 받게 된다. 적들의 포성이 울려오도 전기공로도 중단되고 식량도 떨어지지만 결사대원들은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고 총알로 쏟아져 기관총생산을 진행한 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사대원들이 불사신처럼 싸워나

평산군 읍지구 로병기동예술선동대원들

평산군에서 인민군대에 입대한 병사들에게는 하나같은 추억이 있다. 그것은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 초소로 떠나는 자기들을 뜨겁게 비례워주던 읍지구의 로병기동 예술선동대원들의 모습이다. 어제날의 군복을 떨쳐내고 전신가요도 불러주고 자기들의 가슴속에 불타고 뜨거웠을 간직한 이들이기에 끝없는 광채는 화약연기로 앞을 불수 없게 되자 재빨리 목표표현에 나서서 무기성능검사를 해내고야만한다. 이런 결사투쟁의 정신을 간직한 로동계급이기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전쟁 전기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미제를 타승하고 혁명의 속포를 싸울리는데 적극 기여하게 되는것이다.

장편소설 《명맥》은 나라와 민족의 명맥이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와 거거운 사랑은 군수공업로동계급의 무한한 힘의 원천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다음으로 장편소설 《명맥》이 거둔 성과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군수공장로동계급이 발휘한 수령형상유형을 예로 하는 군자리정신이야말로 세대를 이어 즐기게 계승해나가는 할 고귀한 시대정신이라는것을 진실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는것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군자리로동계급은 공장을 안전한 곳으로 소개하는 것과 함께 기관총 700정을 만들때 대한 최고사령부 명령을 받게 된다. 적들의 포성이 울려오도 전기공로도 중단되고 식량도 떨어지지만 결사대원들은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고 총알로 쏟아져 기관총생산을 진행한 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사대원들이 불사신처럼 싸워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브라질공산당 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민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2일 라울 크로에프 당중앙위원회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공산당 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하였다.

대표단원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들 사이의 국제적단결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으며 세계자주화 위업수행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오기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리라

평성시 덕성소학교 교직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교원들을 믿고 조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맡겠습니다.》

몇몇 평성시 덕성소학교 교장 형제애동무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교육사업에서 전한을 일으키자면 무엇보다도 부추기는 교실준비부터 해결해야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와 령계가 있던 한 인민군부대에서 지휘관들이 찾아와 힘을 합쳐 세 교사를 번듯하게 일떠세우자고 하는 것이었다.

2012년 8월초 마침내 학교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인민군부대와 함께 착공의 첫삽을 박았다. 다음날부터 학교마당에는 굴착기와 대화화물자동차들이 들어섰다.

민현옥, 리희선동무를 비롯한 교원들과 함께 많은 학부형들이 학교를 응원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해결해달라던 것이다. 며칠만에 방대한 기초과기작업이 완결되니 교원들은 그 기세로 너달돌 안에 4층짜리 골조공사물을 팔았다. 그러나 공사량에 비해 자재가 모자랐다. 학교일꾼들은 부추기는 자재해결을 위해 세멘트공장에서 밤을 지새우도록 하고있고 단장의 꽃무늬도 우물장미를 떠나기도 하였다.

그나날 부교장 리선숙동무는 자식의 결혼식을 위해 마련하였던 물자들을 건설장에 들고나와 사람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성실, 투정순동무도 교사건설을 위해 가정에 많은 물자들을 준비하여 인민군과 교직원들을 감동시켰다. 김승진, 김승복, 김유경동무들은 공사장에서 살 다달이 하였고 지경애동무를 비롯한 분파장들은 건설 전기간 교직원들의 애정에서 헌신의 팍팍

당이 선구혁명정년들을 총각하게 만들어가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꾼들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해주며 그들이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잘 돌보아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어느날 경원군 읍 158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영예군인 로광철동무는 군당위원회로부터 딱딱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 분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고마움에 목이 뻐다. 언제나 자기들을 위해 마음쓰는 군당일꾼들이었다. 그날도 로광철동무와 그의 안해는 후퇴하지는 심정을 안고 병원으로 향하였다. 병원의료일꾼들의 뜨거운 정성속에 며칠동안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들부부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부역이며 방안이 새 집처럼

형제들이 찾아오는 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동강구역 청류1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남진철동무의 집에서 연방 전소리가 들려나왔다.

《여보, 형님들과 누님이 오면 걱정하지 않게 집안정돈도 잘해내고 더 손전까지 없애는가 자세히 살펴봐요.》

남진철동무가 영예군인이 되어 고향에 돌아온 것은 10여년전이었다. 얼마후 남진철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영예군인들이 려친 심장의 목소리

경원군에 서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 더 좋은 일을 찾아야.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향심과의 리로 받드는 길이다.”

군당책임일꾼의 호소는 일꾼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력 후에야 영예군인부부는 그 사연을 알게 되었다.

전투임무수행중 쓰러진 해군수사들의 몸을 모셔왔던 시고 자신께서 모주가 되어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 소식을 커다란 감동속에 접한 군당책임일꾼들의 생애는 깊은 애정이었다. 지난 시기 인민군인들과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비하면 너무나 거리가 먼 자기들에게 부역이며 방안이 새 집처럼

뜨거운 애국의 마음안고

원군으로 자랑 많은 한 가정

경원군 읍 164인민반 조영철동무의 가정이다. 인민군부대에 보낸 원호물자들 마련하고있는 그들의 얼굴마다 애국의 정이 넘쳐흐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조경철

브라질공산당 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라울 크로에프 당중앙위원회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공산당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평성시와 박파뿌르시사이의 친선도시관계설정에 관한 합의 조인

우리 나라 평성시와 내팔 박파뿌르시사이의 친선도시관계설정에 관한 합의서가 19일 베를린에서 조인되었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대표단 도착

미하일 바켈코프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대표단이 2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조선청년 학생대표단이 떠나 갔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장 최일환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22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당이 선구혁명정년들을 총각하게 만들어가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동강구역 청류1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남진철동무의 집에서 연방 전소리가 들려나왔다.

《여보, 형님들과 누님이 오면 걱정하지 않게 집안정돈도 잘해내고 더 손전까지 없애는가 자세히 살펴봐요.》

남진철동무가 영예군인이 되어 고향에 돌아온 것은 10여년전이었다. 얼마후 남진철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영예군인들이 려친 심장의 목소리

경원군에 서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 더 좋은 일을 찾아야.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향심과의 리로 받드는 길이다.”

군당책임일꾼의 호소는 일꾼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력 후에야 영예군인부부는 그 사연을 알게 되었다.

전투임무수행중 쓰러진 해군수사들의 몸을 모셔왔던 시고 자신께서 모주가 되어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 소식을 커다란 감동속에 접한 군당책임일꾼들의 생애는 깊은 애정이었다. 지난 시기 인민군인들과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비하면 너무나 거리가 먼 자기들에게 부역이며 방안이 새 집처럼

뜨거운 애국의 마음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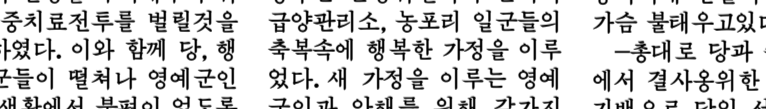
원군으로 자랑 많은 한 가정

경원군 읍 164인민반 조영철동무의 가정이다. 인민군부대에 보낸 원호물자들 마련하고있는 그들의 얼굴마다 애국의 정이 넘쳐흐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조경철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장 최일환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22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장 최일환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22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태양의 축복속에 만복을 누리시다

무릇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에게도 제일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입니다. 나는 이 노래를 오라비를 할 때에도 부르고 사회주의대전설장들을 찾아 노래를 요청받았을 때에도 부릅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이 노래는 나와 류다른 인연을 맺은 노래입니다. 40여년전 공화국의 품에 처음으로 안기였을 때 먼저 배운 노래가 바로 《세상에 부럼없어라》였습니다. 온 나라 강산에 미재사망, 후대사랑의 위대한 사사가 울려 퍼지는 격동적인 현실속에서 이 노래는 더더욱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내 오늘 그 광만한적인 운동속에 태양의 축복이야 만복을 누리는 나의 긍지높은 삶, 세상에 부럼없는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의 행복 넘친 삶에 대해 노래하려 합니다.

나야말로 이 세상에 부러웠었던 복받은 인간입니다. 감옥구성이 필연 하였던 내가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공화국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떠받들어 오고있습니다. 어머니당의 다신한 은정속에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사랑의 보금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다 아는 축복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방안에 걸린 모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친필서한은 보면 볼수록 무한한 행복감이 가슴속까지 흘러나옵니다. **“우리 인민들의 축복속에 태어난 애기이름을 축복이라고 지어줍니다”**

김 정 일

2002. 7. 23. >

그때로부터 어느덧 열두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이 깊어집니다. 차디찬 남녘 땅에서 인공적으로 시들던 나에게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자식복을 안겨주시고 친정 딸애의 이름까지 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절제위인의 하늘같은 은혜를 품어 집시록 격정에 목매입니다.

몇몇한 우리 축복이가 국제아동절을 맞아 진행된 어린이들의 예술상품공연에 출연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랑한 목소리로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부르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길을 적시었고 끝내 나도 울려댈었다. 수십년전 내가 처음으로 배운 이 노래를 딸이 부르는 것을 보자 감회가 깊었습니다.

추위에 얼어붙은 사람일수록 태양의 열과 빛을 더 느끼고 인공조명을 쬐면 사람만이 행복의 귀중함을 더 잘 아는 법입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때없이 부르며 누리는 만복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속차오를수록 나의 수난에 찬 과거가 돌이켜집니다. 남조선전선도 양양군에서 10남해의 막내로 태어난 나는 만백지인생으로 20여년간을 보냈습니다. 예로부터 막내아들은 가정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했지만 나는 한편으로 자신의 그러한 애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당시 황체들은

절반은 굶주림과 병마로 이미 저세상사람들이었습니다. 양부모도 일찌기 한창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민학교를 몇해 다니고 초등학교는 안 다녀보고 9살때부터 나무지계를 지고 비지땀으로 미역을 감으며 실습속에 힘찬 산길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0남해중 학교문전에도 가본것은 나 혼자뿐이라는 유일한 위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었습니까. 굶기를 밥먹듯 하다나니 늘 주린 배를 움켜쥐고 다니었습니다. 남들이 먹다버린 과일 껍질을 주먹고 모진 배아름에 몸부림치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학교실업 실용학 교에서 겨우 콩보리밥에 된장 맛술가락 밥은 밤짜이 창고스러워 우스근 곳을 찾아 가며 눈물을 떨구던 일은 오히려 즐거움 추억이었습니다.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피를 판적은 또 열마였는지 모릅니다.

다. 불쌍한 막내라고 늘 원심을 쓰던 누이들도 다 생일날에 쌀밥 한사발 안겨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집살림은 궁핍했습니다. 한창시절을 이렇게 세 서러움의 눈물로 보내면서 때로 먼저 간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이지만 부추함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사 나에게 어머니가 열백배 계신다한들 차디찬 그 세상에서 별도로기 있었겠습니까. 어깨를 짓누르는 나무뿌리로도 내 작은 입을 건사할수 없어 나는 소년배군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축복이아니겠습니까.

바다는 바다대로 애어린 육체를 가혹하게 다달질하였고 무시로 생명을 위협했습다. 그것은 그렇지만 배군들에 대한 천시는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사자바를 먹으며 청성관을 등에 지고 다니는 비천한 인생이라 어디 가나 《세상에 배운》이라는 상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배군들은 자연히 몸도 마음도 거칠어져 타락과 열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었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들에서 나는 자기의 앞날을 예감하며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절망은 마음의 자살이었는데 내 처지가 바로 그랬습니다. 산 사람에게 포가 없다면 승선다는것만 남고 죽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못말기에 이르러지 체이는 막걸로는 인생인간지 부러울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부러워해야 아무 소용도 없는 그 가련한 신세를 어린 마음인데 어찌 깨닫지 못하였겠습니까.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볼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달밤에 그네를 흔들며 모여 왜 그다지도 남녘에서의 불우한 나날이 생각나면지.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서러워한다는 노래를 들으며 지도 모르는 사이에 두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것을 견줄수 없었습니다.

아버진 또 우신다고 팔을 짊어갔는 축복이 보며 모는 나는 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태양의 축복속에 부러웠었음이 자라나는 내 딸 축복이, 너같은 행복동들이어 어찌 저 노래의 진의미를 다 알겠는가. 내가 부러움의 감정을 처음 느끼게 된것은 공화국의 품에 안긴 때부터였습니다.

물고기잡이를 위해 차디찬 2월의 남바다에 나선것은 바로 그때뿐이었습니다. 캄캄한 철창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 노래는 모진 고초를 이겨내게 하는 신념의 숨결이었습니다.

출옥후 어느 한 통일운동단체 성원들의 모임에서 나는 수십년간 마음속으로 부르 고 부르던 이 노래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얼굴에 비었던 감동과 동경의 빛이 오늘날도 눈에 선합니다.

장장 30년세월 남녘의 차디찬 감방에서 신념을 지켜 싸우다가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겨보니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 노래가 변함없이, 더욱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욱 깊은 감명을 받은것은 아이들의 행복이 꽃들결로 설매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것을 천품으로 지니신분, 후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자로써는 어머니를 평등자로 모시고있는 것일 얼마나 큰 복인가를 복속에서 알아 온 조국인민들은 아마 다는 모를것입니다.

한정생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며 세상에 좋은것은 다 안겨주시는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대원신들의 그 고매한 천품을 그대로 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후대판은 매일, 매 시각 내 가슴을 울려줍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목표입니다.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땅의 곳곳에서는 나라의 왕들인 우리들을 위한 사랑의 공진들이 수없이 열매지고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축복》이란 이름은 더우기 당치않을것입니다. 공평같은 야성소자랑, 송도원인 아름다운 경치향으로 팔남을 모는 딸애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비참한 옛 추억이 또다시 갈라 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던 속초의 바다기도 아름답습니다. 속초는 옛적부터 명승지로 소문났던 설악산을 끼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해돋이때 바다에서 부글부글 그 경치가 또한 류다릅니다. 그런데 그 경치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유년시절 무지개를 지고 힘겹게 남다를 때도 그렇고 소년어복 시절 귀향에서도 때때로 빠져서 보고 싶은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싶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고대사람들이나 모든 남녘인민들에게도 펼쳐지게 하고싶었습니다. 내가

미군에 끌려가는 것은 내행 폭로

남조선여성들을 위한 인권노출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이 16일 남조선여성들을 위한 인권노출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지난 전정후 남조선민국이 미군에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반대하는 항의운동에 전개하였다. 단계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기습작전을 하듯 성매매 개방정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는 민중의 분노를 사건에 차탄하기 위해서라고 깨달았다. 남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였지만 현 《정권》은 농업주권을 포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놓게 되었다.

《정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기습작전을 하듯 성매매 개방정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는 민중의 분노를 사건에 차탄하기 위해서라고 깨달았다. 남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였지만 현 《정권》은 농업주권을 포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놓게 되었다.

이제 로건에게 이른 피해자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된채 살아

조국통일을 위한 협조한 싸움길에 주저없이 나선것은 바로 그때뿐이었습니다. 캄캄한 철창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 노래는 모진 고초를 이겨내게 하는 신념의 숨결이었습니다.

출옥후 어느 한 통일운동단체 성원들의 모임에서 나는 수십년간 마음속으로 부르 고 부르던 이 노래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얼굴에 비었던 감동과 동경의 빛이 오늘날도 눈에 선합니다.

장장 30년세월 남녘의 차디찬 감방에서 신념을 지켜 싸우다가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겨보니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 노래가 변함없이, 더욱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욱 깊은 감명을 받은것은 아이들의 행복이 꽃들결로 설매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것을 천품으로 지니신분, 후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자로써는 어머니를 평등자로 모시고있는 것일 얼마나 큰 복인가를 복속에서 알아 온 조국인민들은 아마 다는 모를것입니다.

한정생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며 세상에 좋은것은 다 안겨주시는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대원신들의 그 고매한 천품을 그대로 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후대판은 매일, 매 시각 내 가슴을 울려줍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목표입니다.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땅의 곳곳에서는 나라의 왕들인 우리들을 위한 사랑의 공진들이 수없이 열매지고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축복》이란 이름은 더우기 당치않을것입니다. 공평같은 야성소자랑, 송도원인 아름다운 경치향으로 팔남을 모는 딸애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비참한 옛 추억이 또다시 갈라 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던 속초의 바다기도 아름답습니다. 속초는 옛적부터 명승지로 소문났던 설악산을 끼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해돋이때 바다에서 부글부글 그 경치가 또한 류다릅니다. 그런데 그 경치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유년시절 무지개를 지고 힘겹게 남다를 때도 그렇고 소년어복 시절 귀향에서도 때때로 빠져서 보고 싶은

이제 로건에게 이른 피해자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된채 살아

산세였지만 나에게게는 그 경치를 즐기 무런 정신적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제일 경치좋은 곳에서 꾸러짐 그 많은 궁전, 야영소에서 한결 구경없이 마음껏 웃고 뛰놀다. 얼마나 행복하 아이들입니까.

지난 국제아동절때 평양에유원에 펼쳐졌던 감동은 화폭도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6.1절을 맞이한 원아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아이들이 하나같이 밝게 웃는것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말씀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친아버지앞에서 재물을 부리는 자식들마냥 그리 품에 매달려 떨어질것 모르는 원아들, 그것은 생애 육친의 정이 넘쳐흐르는 한가정, 한신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다 못봤습니다. 저녁밥을 맛있게 먹는 원아들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계셨는지, 얼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날 원수님께서 원아들의 식사도구를 두고 못내 마음쓰시면서 아직 아이들을 위한 일에 빈구석이 많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합니다. 그러시고 집기류와 원아들의 생활필수품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것으로 마련해 주겠다고 하시며 그 대책까지 세워주셨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세심한분이십니까. 얼마나 극진한 사랑입니까. 다른 나라에도 고아원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수반이 고아원을 찾아갔었다는 소리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실사 그 누가 찾아갔었다한들 동정의 꾸미미를 들고 갈수는 있어도 결코 친부모의 정을 부여줄수 없습니다. 짐없는 아이들, 부모없는 아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가장 어두운 리름을 보여 주는 존재》라고 말은 하면서도 눈길을 땀만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님께서 한해에도 여러차례나 부모없는 아이들을 찾아주시며 이따금씩 얼굴을 사랑의 진심을 내기십니다.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하고, 우리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받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하시며 다정한 정을 기울이는 우리 원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어리시절 내자신이 빠져서도 체할수 없었던 고아의 설움을 일시에 녹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우리 원수님처럼 한없이 송고한 후대판을 지니시고 아이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어가는 위인은 없습니까. 흠이 없는 다 모아도 태양을 이루지 못하듯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후대 사랑에는 결코 천만분의 일도 가당치 못합니다.

도처에서 퍼버린 본성이 그렇게 없는 오늘날의 세계에 그 첫뚝가는 피해자는 다름 아닌 아이들입니다. 더우기 미제의 침략의 미수가 뻗던 나라들에서 슬한 전제교회를 이기고 불쌍한 아이들이 보호와 구원을 애라게 부르고있습니다. 한지맥으로 당장은 남녘땅에서도 해마다 슬한 아이들이 《인양》의 명목으로 다른 나라들에 물건처럼 팔려가고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수학

부 때문에 최없는 아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가슴아픈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차게 싸울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시월 6월말 남조선의 주요도시에서 출발하였던 행진단이 7월 12일 《세월》호침몰사건 전경장과 가까운 진도의 팽목항에 도착하였다. 행진단시월은 한결같은결을 《세월》호참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서러움과 슬픔을 마음에 새기며 왔다고 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14일 《세월》호침몰사건 전경장을 위해 조직된 각계 단체인원들은 특별법제정을 요구하여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들은 《세월》호참사사건 전개가 없는 비극일에 돌부리고 집권세력은 자기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있다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반드시 당국의 책임을 따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식투쟁에 참가한 한 유가족은 낱새는 몸시 무뎠지만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의 넘넘을 꼭 실현하기 위해 조금도 두려움없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겠다고 공선 투쟁의지를 피력하였다. 《세월》호참사도 딸을 잃은 한 여성은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기에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가족은 우리와 같은 운명을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겪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단식을 하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단명하였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의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영화를 제작할것을 받고있고 영화제작을 위한 모금운동도 벌려 갔다. 한 영화감독은 자녀들이 죽은 원인을 알지 못해 구심한 울화병에 시달리고있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7월 15일 《세월》호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350만명의 서명문건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였다. 집권위기를 쇠시시키는 《세월》호침몰사건의 흐름속에서 슬그머니 덮어버리려는 남조선보수당국의 기도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투쟁에 부딪치고있다. 본사기자 김 함 III

《세월》호침몰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12일 저녁에도 이곳에서는 5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집권자의 퇴진과 특별법제정을 위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12일 저녁에도 이곳에서는 5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집권자의 퇴진과 특별법제정을 위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KBS》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민주로총, 시민사회단체대표들, 각계 원로들은 당국의 전교조 탄압을 비난하면서 민중이 더는 현 《정권》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0일에도 남조선도처에서 모여온 1만 6000여명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서울에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면서 현 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시간이 흐름수록 전교조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윤 남

《KBS》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민주로총, 시민사회단체대표들, 각계 원로들은 당국의 전교조 탄압을 비난하면서 민중이 더는 현 《정권》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0일에도 남조선도처에서 모여온 1만 6000여명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서울에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면서 현 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시간이 흐름수록 전교조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윤 남

《KBS》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민주로총, 시민사회단체대표들, 각계 원로들은 당국의 전교조 탄압을 비난하면서 민중이 더는 현 《정권》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0일에도 남조선도처에서 모여온 1만 6000여명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서울에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면서 현 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시간이 흐름수록 전교조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윤 남

《KBS》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민주로총, 시민사회단체대표들, 각계 원로들은 당국의 전교조 탄압을 비난하면서 민중이 더는 현 《정권》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0일에도 남조선도처에서 모여온 1만 6000여명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서울에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면서 현 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시간이 흐름수록 전교조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윤 남

려움을 떠났던 수많은 학생들이 인간의 정이 말라버리고 돈밖에 모르는 세상을 만난 탓에 겁부른 바다속에 빠져 어찌나없는 생수들을 당하였습니까. 이런 압축천지에 과연 미래가 있을수 있었습니까.

백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아이들의 삶에 앞날을 생각조차 할수 없지만 우리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그것이 눈앞의 현실입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송도원국제 소년단야영소를 또다시 돌아보시면서 하신 뜻깊은 말씀이 귀전을 울려줍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슬기에 대한 심심과 탄탄을 준다. 악대의 재부부도 귀중한 운명을 대 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시련도 두렵지 않고 빈적이는 변화고도 절대로 부러지 않습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모진 시련과 역경을 웃음으로 헤쳐나왔다. 수명과 인민이 피와 정으로 맺어지고 승결과 박동을 같이하는 이런 제도, 이런 나라를 그 누구도 어찌 지 못합니다. 옥중에서 전향공작의 칼바람이 휘몰아칠 때 고향의 들은 나를 만만하게 여기고 걸림기고 악착한 교문을 들이대었습니다. 하지만 내 신념을 꺾을수 없었습니다. 맥이 빠진 그들은 남쪽에서 배가 굶은 리재물이 불과 3년만에 저렇게 빨간 물이 든것을 보니까 의상과 체구 무섭진 무섭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3년이 아니라 3개월 아니 3일만이라도 그 고마운 세상에서 살아남 사람이라면 달릴수 없을것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사회주의제도를 애써보려고 끈질기게 발악하는자들에게는 말하고싶습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 노래가 생활의 선봉로, 신념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이런 나라를 그 누구도 당해낼수 없다고. 왜냐하면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께 인민은 목숨바쳐 충성다하게, 소중함 그 제도를 지켜 그 무엇보다도 두려움없이 결집해 싸워나가기에, 노래의 구절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힘 꺾을자 그 어데 있오라
광광도 무집지 않아
백두의 넋을 이여 빛나는
내 조국 두름물라라
...

나는 요즘 우리 축복이의 사친을 때없이 돌아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합니다. 축복이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기 그지없습니다. 축복이는 지금 당의 은정속에 강간성혁명학원에서 선군조선의 역군으로 여색계 자라나고있습니다. 사친들의 딸애와 나는 자주 마음속대화 를 나눕니다.

축복이,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께서 축복해주신 이의 앞날은 참으로 밝고 밝다.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주는 선군의 찬연한 빛바람에 이 땅의 수백만 적혁명들의 앞날은 참으로 아름답다.

매국적인 쌀시장개방에 항의하여 투쟁 전개

남조선의 전국농민회총연맹(전총), 전국녀성농민회총연맹(전녀총), 카톨릭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 성원들이 18일 서울에서 남조선당국의 쌀시장 개방정책에 항의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현 집권자가 쌀시장의 개방으로 이 땅의 식량주권을 팔아먹으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현 《정부》야말로 농민들의 절구를 외면하고 농민들과의 싸움을 선문화 불통, 독재 《정부》라고 하면서 그들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기자회견도중 《정부》가 남조선의 쌀시장을 전면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에 전제지자 분노한 농민들은 《정부》청사안으로 돌입하기 위해 격렬한 시위투쟁을 벌였다. 경찰들이 앞을 막아서자 전총의장, 전녀총의장, 카톨릭농민회 회장 등이 항의의 표시로 사발

을 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쌀시장개방정책을 발표하였는 매국행위라고 단죄하였다. 현 《정권》과 재벌의 탐욕에 맞서 각계와 연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전총 경상남도 편맹이 18일 경상남도 창녕군도 전맹에서 당국의 쌀시장개방을 반대하는 항의운동을 전개하였다. 단계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기습작전을 하듯 쌀시장 개방정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는 민중의 분노를 사건에 차탄하기 위해서라고 깨달았다. 남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였지만 현 《정권》은 농업주권을 포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놓게 되었다.

《정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기습작전을 하듯 쌀시장 개방정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는 민중의 분노를 사건에 차탄하기 위해서라고 깨달았다. 남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였지만 현 《정권》은 농업주권을 포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놓게 되었다.

이제 로건에게 이른 피해자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된채 살아

강한 항거에 부딪치고있는 전교조말살소동

위협하였었다. 그에 대해 전교조는 해고자들의 조직인정승거 부하는것은 조항의 단합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배격하면서 국제 노동기구 등도 당국에 해고자들의 로조원자적유지를 견고하였다고 까맣하였다. 하지만 남조선 당국은 지난해 10월 끝끝내 전교조에 대한 범로조정보보로 강요하고야말았다. 이로부터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범로조정보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금지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던것이다.

그러나 결국 남조선행정법원은 전교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당국의 편을 들었다. 이로 하여 전교조는 합법적으로 된지 15년만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로조정보보의 명리 등을 잃고 로조조합이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남조선전선세력의 이러한 처사는 전교조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주장의 반영으로 비판 주권의적지사로라고 비난하면서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6월 21일 전교조는 긴급대의원대회를 열고 27일 모든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집회투쟁을 벌렸고 7월 12일 교원대회, 범로조반결투쟁을 위한 시국선언발표를 진행할것 등을 결의하였다.

《뉴스》, 《련합뉴스》 등은 6월 27일 서울에서 진행된 전교조의 투쟁소식을 전하였다. 이날 전교조는 범로조반결투쟁을 위한 조외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 《정부》투쟁에 돌입하였다. 당국이 투쟁에 나선 조합원들을 처벌할 필정을 밝힌것으로 하여 투쟁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날 수많은 조합원들은 조외투쟁에 이어 대회, 기자회견 등을 열고 당국의 부

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면서 법의 조외판결을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태는 지난 6월 27일 교우부가 각시, 도교육청에 조외투쟁참가자들을 확인하고 고발할것을 지시하면서부터 더욱 악화되고있다. 지난 6월 30일 《문화일보》는 교육부가 조외투쟁참가자들을 처벌하려 하지만 교원들에 대한 처벌권한을 각시, 도교육청이 가지고있고 7월 1일 남조선의 13곳에서 일제히 위임하게 되는 진보적인 교우감독이 교육부의 조치를 받아들이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7월 3일까지 교원들의 학교에 복귀할것을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있으며 이 단위의 투쟁은 보다 강도높게 일어났다고 전하였다.

이제 로건에게 이른 피해자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된채 살아

이제 로건에게 이른 피해자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된채 살아

이제 로건에게 이른 피해자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된채 살아

미군에 끌려가는 것은 내행 폭로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이 16일 남조선여성들을 위한 인권노출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지난 전정후 남조선민국이 미군에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반대하는 항의운동에 전개하였다. 단계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기습작전을 하듯 성매매 개방정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는 민중의 분노를 사건에 차탄하기 위해서라고 깨달았다. 남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였지만 현 《정권》은 농업주권을 포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놓게 되었다.

《정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기습작전을 하듯 성매매 개방정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는 민중의 분노를 사건에 차탄하기 위해서라고 깨달았다. 남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였지만 현 《정권》은 농업주권을 포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놓게 되었다.

이제 로건에게 이른 피해자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된채 살아

미군에 끌려가는 것은 내행 폭로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이 16일 남조선여성들을 위한 인권노출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지난 전정후 남조선민국이 미군에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반대하는 항의운동에 전개하였다. 단계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기습작전을 하듯 성매매 개방정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는 민중의 분노를 사건에 차탄하기 위해서라고 깨달았다. 남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였지만 현 《정권》은 농업주권을 포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놓게 되었다.

《정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기습작전을 하듯 성매매 개방정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는 민중의 분노를 사건에 차탄하기 위해서라고 깨달았다. 남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였지만 현 《정권》은 농업주권을 포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놓게 되었다.

이제 로건에게 이른 피해자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된채 살아

끝나지 않은 《세월》 호사건관련투쟁

남조선에서 《세월》호침몰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100일이 되었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을 위한 각계 인민들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10일 경기도의 한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침몰사건의 해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여기에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성역없이 조사하라》, 《박근혜도 폐되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웨치었다. 발언자들은 특별법제정과 관련한 당국의 말과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피해야가자들이 가장 원하는것이 아니라서 누구도 수사에 배외로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의 청계천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세월》호침몰사건해결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12일 저녁에도 이곳에서는 5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집권자의 퇴진과 특별법제정을 위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KBS》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민주로총, 시민사회단체대표들, 각계 원로들은 당국의 전교조 탄압을 비난하면서 민중이 더는 현 《정권》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0일에도 남조선도처에서 모여온 1만 6000여명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서울에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면서 현 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시간이 흐름수록 전교조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윤 남

《KBS》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민주로총, 시민사회단체대표들, 각계 원로들은 당국의 전교조 탄압을 비난하면서 민중이 더는 현 《정권》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0일에도 남조선도처에서 모여온 1만 6000여명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서울에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면서 현 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시간이 흐름수록 전교조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윤 남

《KBS》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민주로총, 시민사회단체대표들, 각계 원로들은 당국의 전교조 탄압을 비난하면서 민중이 더는 현 《정권》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0일에도 남조선도처에서 모여온 1만 6000여명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서울에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면서 현 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시간이 흐름수록 전교조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윤 남

《KBS》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민주로총, 시민사회단체대표들, 각계 원로들은 당국의 전교조 탄압을 비난하면서 민중이 더는 현 《정권》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0일에도 남조선도처에서 모여온 1만 6000여명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서울에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면서 현 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시간이 흐름수록 전교조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윤 남

《KBS》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민주로총, 시민사회단체대표들, 각계 원로들은 당국의 전교조 탄압을 비난하면서 민중이 더는 현 《정권》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0일에도 남조선도처에서 모여온 1만 6000여명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서울에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면서 현 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시간이 흐름수록 전교조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윤 남

강한 항거에 부딪치고있는 전교조말살소동

위협하였었다. 그에 대해 전교조는 해고자들의 조직인정승거 부하는것은 조항의 단합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배격하면서 국제 노동기구 등도 당국에 해고자들의 로조원자적유지를 견고하였다고 까맣하였다. 하지만 남조선 당국은 지난해 10월 끝끝내 전교조에 대한 범로조정보보로 강요하고야말았다. 이로부터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범로조정보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금지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던것이다.

그러나 결국 남조선행정법원은 전교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당국의 편을 들었다. 이로 하여 전교조는 합법적으로 된지 15년만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로조정보보의 명리 등을 잃고 로조조합이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남조선전선세력의 이러한 처사는 전교조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주장의 반영으로 비판 주권의적지사로라고 비난하면서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6월 21일 전교조는 긴급대의원대회를 열고 27일 모든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집회투쟁을 벌렸고 7월 12일 교원대회, 범로조반결투쟁을 위한 시국선언발표를 진행할것 등을 결의하였다.

《뉴스》, 《련

